

순창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89건 7천억원 규모... 내달 6일 점검회의 막바지 대선공약반영 전략 논의

순창군이 5일과 6일 잇따라 국가예산 확보 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갖는 등 '2017년 국가예산확보'에 고삐를 바짝 조였다.

특히 다음주부터 본격적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가운데 이번주 중으로 지역 현안사업 국가예산 반영 여부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막바지 전략을 다듬는데 집중했다. 또 최근 각 부서별로 기재부를 방문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남 사업들 위주로 대책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순창군이 올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굴한 사업 규모는 89개사업 총사업비 7천억원 규모로 농업, 관광, 복지,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총 망라돼 있다.

이중 전북도 대선공약과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장내 유용미생물산업 육성사업과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사업이다. 장내유용미생물 산업 육성사업

은 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다. 제대혈과 같이 가족단위의 태변과 10대, 20대, 30대의 건강한 태변을 보관해 두었다가 40대 이후 장내미생물 균총이 깨졌을 때 가족의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간 총 1,000억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유용미생물 태변 보관은행, 장내 미생물 평가 기술기반 구축, R&D사업, 미생물 신약 생산 C-GMP 미생물 공장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한다.

순창은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감점을 갖추고 있어 중앙부처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국립노화연구소는 2021년까지 총 400억을 투입해 노화연구원을 신축하고 기초 R&D체계구축, 노화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한다. 순창군은 국내 최고의 장수지역으로 서

울대와 함께 건강자수연구소를 운영하고 전국단위 노후설계교육 운영, 장수요인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도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사업을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물어아할 과제도 있다.

군은 전북도와 공조를 강화하고 황숙주 군수가 정치권과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해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는 국가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군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각 부서별로 발굴한 사업이 2018년도 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중앙부처와 기재부 정치권을 전략적으로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2019년도 신규사업 발굴에 들어가 선제적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오백년 종가와 함께하는 생생월령가' 올 첫 포문

임실군, 이달 15일부터 10월까지... 체험행사 다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둔대마을의 전주이씨 오백년 종가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오백년 종가와 함께하는 둔대기 생생월령가'가 올해 첫 포문을 연다.

13일 임실군에 따르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오백년 종가와 함께하는 둔대기 생생월령가' 프로그램이 올해 첫 선을 보인다.

문화재청과 전북도, 그리고 임실군에서 후원하고, 오수면 둔덕리 둔대마을학교 주관으로 마련된 생생월령가는 15일 낮 12시부터 이용재고기에서 진행된다.

생생월령가는 500년 종가에 생기와 활력을 주고, 문화재를 적극 활용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삼계석문 화진놀이 가세'를 시작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풀어내는 '둔대기 고부찬가'를 비롯, 둔대기 일대의 세시놀이를 월령별로 체험할 수 있는 '둔대기 생생월령가', 삼계강사 선비가 되어보는 '둔대기 Local School 체험' 등 다양하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진행된다. 민속문화재 제 12호인 이용재고기가 있는 오수면은 오수의전으로 유명하다.

특히 둔덕리는 오수전을 따라 오수천, 둔담천, 울천(월령천) 등 세 개의 물줄기가 합수되는 지역으로 일찍부

터 진양하씨, 삭녕최씨, 순천김씨, 흥성장씨, 청주한씨, 전주이씨, 남원양씨 등 7개 성씨가 함께하는 살기 좋은 마을로 잘 알려져있다.

이번 생생문화재사업의 중심이 되는 이용재고기는 전주이씨 효령대군과 충성정 이담순이 1550년대 전후로 정착한 이래 현재까지 17대 종손으로 이어진 500년 된 종가이다.

군은 이번 생생문화재사업을 통해 이용재고기를 비롯한 오수면 둔덕리 일대의 삼계강사, 삼계석문, 구로정, 단구대 등을 탐방하고 농경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역사를 알리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별 신청접수 및 문의는 꽃심지둔대기마을의 둔대기마을학교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은 지난 12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 및 민간자문 위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 위촉식 및 심사위원회를 가졌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피해가 적은 정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즉결심판에 그치게 함으로써 우발적이거나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에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반영한 제도로, 이번 위원회에서

는 지역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 봉

사단체장 등 3명의 외부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아울러 경미범죄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즉결심판권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등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 만장일치 훈방 감경처분을 받게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신관사또부임행사' 본격 운영

이달부터 11월 초순까지 매주 토-일에

이번 주말(토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원관광지 및 광한투원을 찾으면 남원의 대표 상설공연물인 '신관사또부임행사'를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을 휘젓는 남원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신관사또부임행사'는 춘향전의 변함도 남원부임행사 부

를 해학적으로 각색한 퓨전공연물로서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관광객 유치 효과상품이다.

순수 시민 80여명이 참여하는 사또부임 거리퍼레이드와 광한투원 내 마당극 춘향전 등 특색 있고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11월 초순까지 운영

되고 2007년 창단 이래 400여회가 넘는 공연과 타 지역 방문 홍보활동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매년 특색있고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관사또부임행사 공연단은 올해에는 신규작품 개발과 의상, 소품, 음향장비 등을 개선보완 하는 등 새 단장을 하였고,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연계상품 개발과 남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광협의회(위원장 배종철)는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지역문화 관광상품으로 지속 운영하여 관광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춘향제, '사람체험 마당' 도 병행

춘향! 사랑으로 너를 그리다' 주제로 시행하는 제87회 춘향제가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 광한투원 일원에서 열린다.

금번 춘향제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사람체험 마당을 함께 운영한다.

사람체험 마당 부스는 지난 3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관내·외 뜨거운 관심과 전국 최고의 전통축제에 걸맞게 반응도가 높은 가운데 최종 50개의 체험 운영단체가 선정되었다.

이번 사람 체험은 춘향이 열쇠고리 만들기, 도자기 물레체험, 나만의 수제도장 만들기, 활쏘기 체험 그리고 과학 실험을 겸한 전통 클라이더 만

들기, 탕탕볼 만들기, 바스볼 만들기 등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을 바탕으로 즐거운 놀이와 교육적인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사랑의 남원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전국 최고의 전통 축제로서 남원의 과거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위한 길놀이', 끼 있는 흥꾼들의 놀이마당 전국 춤 경연 '이판? 사판?출판', '사랑춤 퍼포먼스·달빛춤' 퍼포먼스 등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축제 행사 내용은 춘향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공중보건의 새로 배치

순창군이 지난 13일 군민들의 진료수요가 불리는 이비인후과, 소아과, 응급실 등에 공중보건의를 새롭게 배치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나섰다.

군은 공중보건의사 10명이 복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다. 이번에 새롭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9명으로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산부인과, 한방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내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전문의 등이다. 의료원에 6명이 근무하고 보건지소에 3명이 배치됐다. 이들 모두는 의·치·한의대를 졸업한 전문의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공중보건의 신규 배치 시 진료수요가 많고 효용도가 높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확보하여 오전에는 건강검진을 하고, 오후에는 이비인후과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확보하여 응급실에 배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지역주민의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군인가족 대상 교육 설명회

임실군은 13일 35사단 총경마을 1?2단지 입주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35사단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군인, 임주가족,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의 교육, 문화·체육, 의료, 보육, 복지 인프라를 비롯해 각종 정책을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제도 안내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주 군인가족의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자녀 교육문제 지원을 위해 내년 개원예정인 공립교육원 임실분관인재학당 운영계획은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군인자녀 장학금,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사업, 전입 장려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농촌 클린운동 행사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12일 지리산둘레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지구인 남원시 추천면 효경마을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클린운동 및 마을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공사 직원과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주변에 철쭉나무(300주)를 식재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과 함께 농로와 구거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남원=유영철 기자

여름행이나 가을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전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천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간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신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